



# 성도의 빛

1989년 8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틴,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제278권, 제33권, 제8호  
**등 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89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정 기 만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08KO  
Printed in Korea 8/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의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대관장단 메시지 :

2 “하나님의 지시와 뜻”.....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방문 교육 메시지 :

7 “돌아오십시오”

8 자녀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아테스 지 캡

13 난 하늘에서 살았네

### 부모 지침서 :

14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할 때.....글렌 시 그리핀

15 잃어버린 진리의 회복 : 1부.....길버트 더블류 샤프스

19 가장 흥미있는 책읽기.....로버트 케이 토마스

### 물론 경험 :

21 안나 나다스디의 가족 역사 보존.....블레인 이 앤더슨에게 한 말

23 “한 시간만 있어야지”.....로버트 케이 레이

25 혼자 사는 사람의 가정의 밤.....주디스 에프 바튼

28 탐파노고스 산에서의 하룻밤.....스코트 키어린

33 부모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물론경.....게리 브링리

35 자녀 양육에 대한 물론경의 가르침

37 음주벽.....앤 로렌스(가명)

44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헨리 비 아이어링

45 힘있고 강한 빛.....에프 엔지오 부쉬

49 위로 받을지어다.....지나 파킨슨 베어드

### 어린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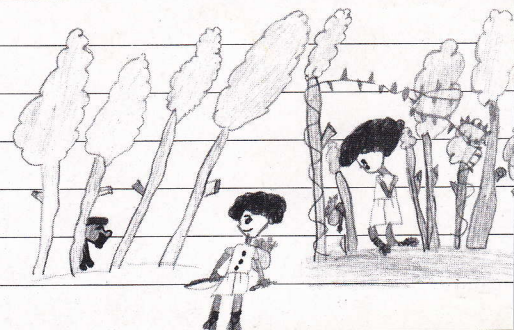
52 뉴스 속의 친구들

54 응답된 나의 기도.....키코 칸단텐이 테리 켈코스에게 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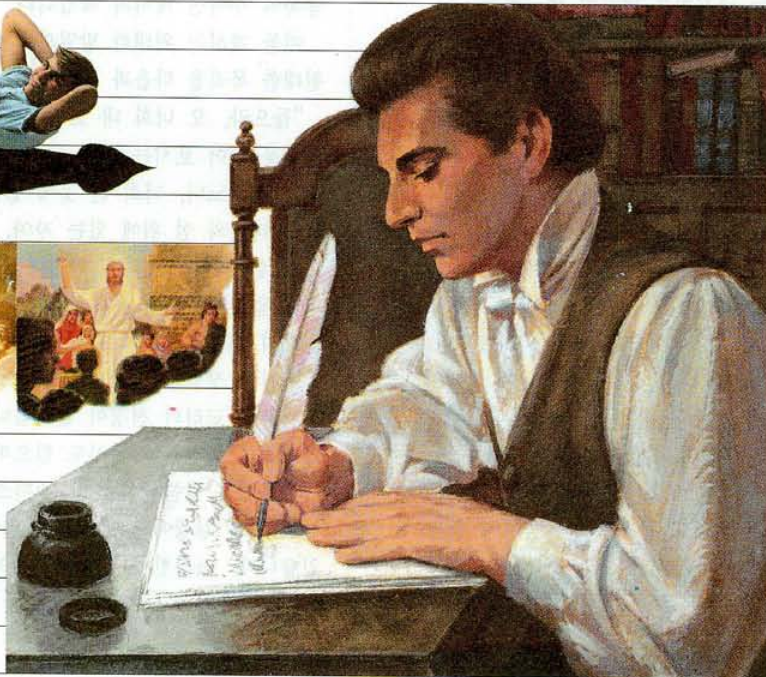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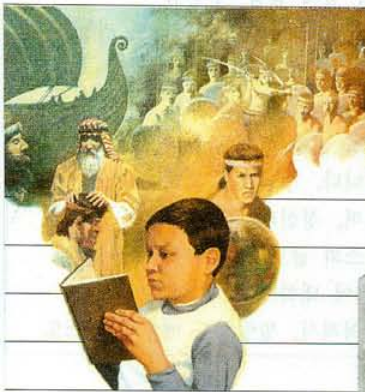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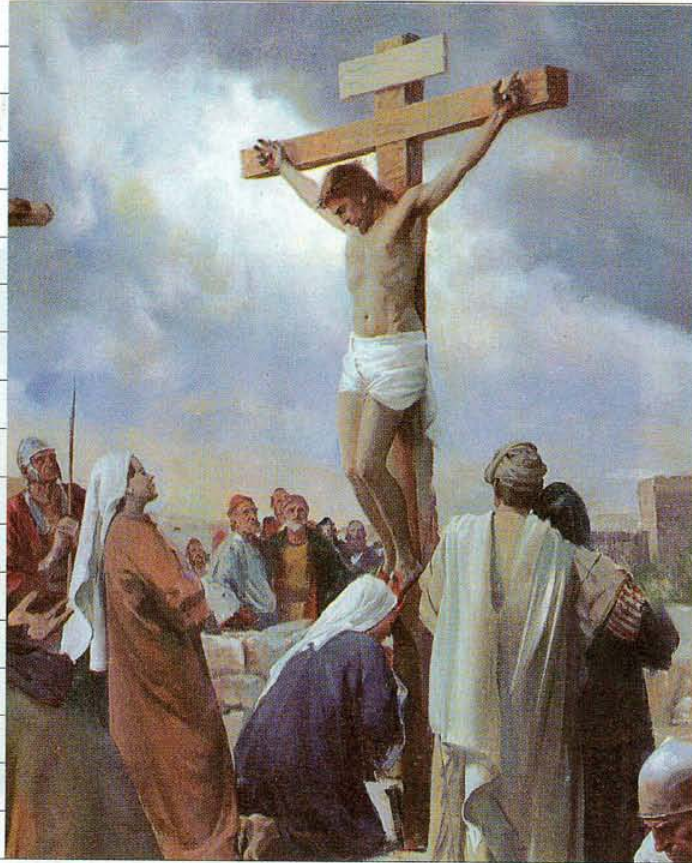
57 십일조

58 교회 및 지역 소식

표지 : 1830년 출판된 물론경 초판 원본.  
사진, 필 셔틀레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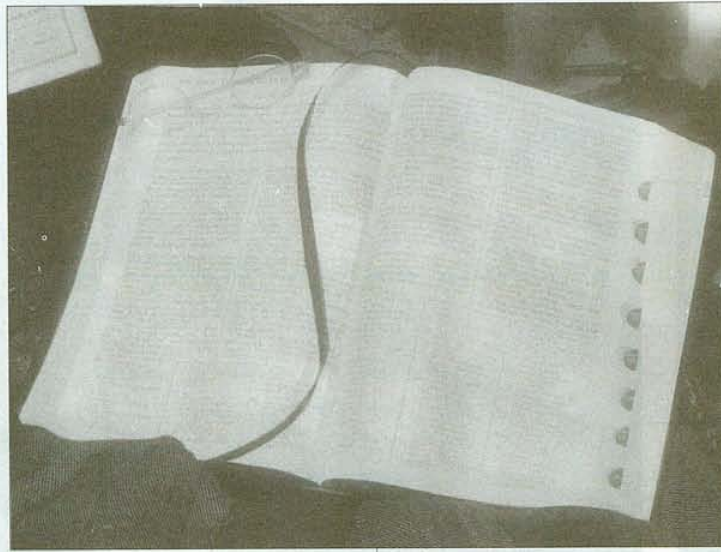
“꽃 피는 계절입니다”



# “하나님의 지시와 뜻”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교리와 성약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세대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값진 진주에는 구약전서 창세기 및 신약전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빠진 내용이 놀랄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소년 시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감동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교회의 구성

교리와 성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중에서도 독특한 것입니다. 이 책은 교회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을** 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언어로 그 훌륭한,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배우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세대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표준 경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해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기초를 놓아 줍니다. 구약전서에는 여호와께서 고대 예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으며, 신약전서에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비할 바 없는 생애와 희생이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신세계의 예언자들의 간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장엄한 역사관을 보여주는 각 장은 전쟁의 비극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로서(니파이이서 33:13 참조), 귀기울여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각종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말씀이 실려 있지만, 이 경전은 근본적으로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의 책입니다.

이들 계시는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 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교성 1:1~2)

이처럼 장엄한 시작으로 영원한 진리의 샘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교리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직접적인 계시도 있으며, 성신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거나 말씀하신 요셉 스미스의 글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 및 의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뉴욕주 팔마이라의 농촌 소년이었던 요셉 스미스의 생애를 경이로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가 책을 읽을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그가 한 말씀은 이처럼 위대하고도 지극히 중요한 사업의 율법이 되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 책에서 그토록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관한 원리 및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고도 주목할 만한 건강의 법칙이 육신과 영의 건강을 약속해 주는 말씀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영원한 신권의 성약이 다른 어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세 등급에 속하는 특권과 축복이, 그 제한 범위와 기회와 함께 선포되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에 대한 바울의 간략한 언급을 좀더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고전 15 : 41과 비교) 회개가 명백하고도 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올바른 침례 방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히던 신화의 본 모습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었습니다. 재정에 관한 주님의 율법으로서, 교회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지시도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 계시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을 읽어 보면,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거의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귀중한 가치가 있으며 매우 훌륭한 경전입니다. 그 힘차고도 아름다운 말씀을 마음껏 음미하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물론경에서 힘을 얻고 결심을 굳히며, 영감을 받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나서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깨우치며, 희망의 약속과 위안과 힘을

얻으십시오.

나는 이 책의 언어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 말씀의 어조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 말씀과 교리적인 설명 및 예언적인 약속이 분명하고도 힘찬 데 대하여 경탄하게 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구절

간증으로서, 나는 이 위대한 계명의 책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몇몇 성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좋아하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구는 내가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나에게 감동을 주며 겸손케 하며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포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보라, 주는 하나님이지요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기록은 참되며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하느니라.”(교성 1 : 38~39)

비판자들이 조롱하고, 적들이 비웃으며, 의심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무시할 때, 나의 마음 속에는 전능하신 분의 그 엄청난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거나 행하신 일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셨거나 예언하신 말씀은 모두 성취될 것이며,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적들의 사악한 간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저들이 나의 사업을 파멸시키도록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참으로 악마의 간계보다 나의 지혜가 더 위대함을 저들에게 보여 주리라”(교성 10 : 43)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업을 약화시키거나 파멸시키려고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의 해악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주신 그 위대한 말씀은 다음의 3편 1절에 나와 있듯이, 나에게 위안과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없나니,”(교성 3 : 1)

나는 어느 나라에서든 선교사들을 만나면 4편의 말씀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언제나 다음의 둘째 구절이 주는 감동으로 인하여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교성 4:2)

장차 헤아림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고백하며 책임을 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는 매일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좋아하는 성구는 더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교성 6:12)

나는 이 말씀을 63편에 있는 다음 말씀과 짝지어 생각합니다.

“위에서 오는 것은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라. 또 신중히 그리고 성신이 이끄시는 대로 말해야 함을 잊지 말라.”(교성 63:64)

나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아무렇게나 농담하듯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괴롭습니다.

나는 빛에 짓눌려 씨름하다 대개는 파산하여 빛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틴 헤리스에게 주어진 다음 말씀이 생각합니다.

“진 빛을 청산하여 속박에서 벗어나라.”(교성 19:35)

빛에 얽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속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

이 짧은 성구는 훌륭하고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육을 받는 젊은이,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가정,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 교사나 연사, 교회 직원 등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끔 두려운 느낌을 갖게 되는 책임을 질 때가 있습니다.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 예

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기록되었듯이,

교리와 성약은 인간이 신회,

회복된 신권의 권능, 교회

통치, 영광의 세 등급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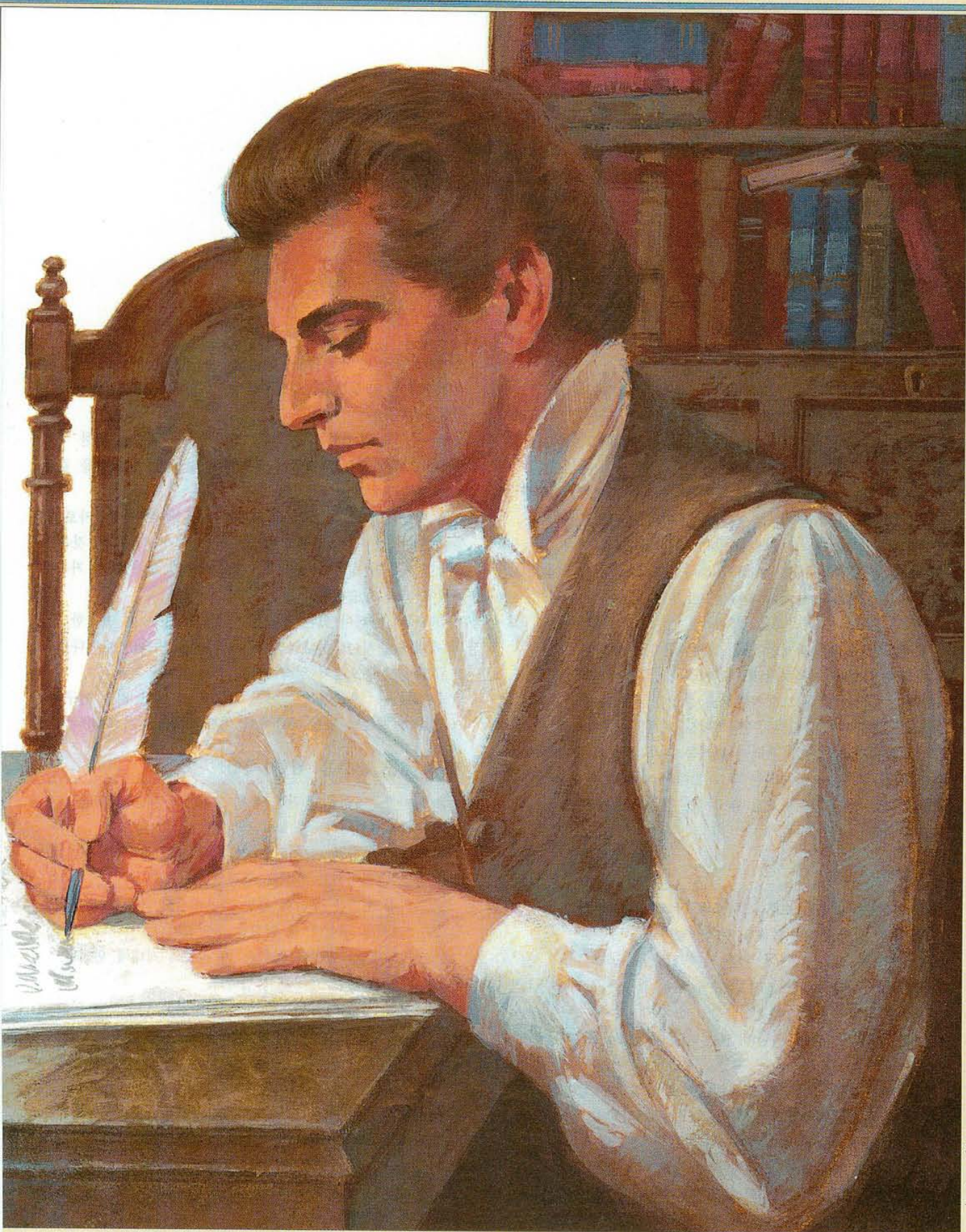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타 많은

적절한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 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 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성 50 : 24)

나는 이것을 놀라운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보의 본질을 밝혀 주며, 몇 마디로 우리를 완전히 이끄는 성장에 대한 약속 및 그 기회를 보여 줍니다. 그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배움에 따라 우리의 예지도 늘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교성 58 : 42)

우리는 용서해 준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기꺼이 용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회개하는 자의 죄는 기꺼이 잊어버리시는데, 우리가 과거를 자주 들추어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영광스러운 선언

나는 76편에 기록된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의 영광스러운 선언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6 : 22~24)

이것이 바로 예언자와 그의 동료가 명백히 말한 간증이었습니다. 요셉은 135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선언이 진실함을 증거하며 그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와 그의 형

하이람은 1844년 6월 27일,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는 계속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죄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위한 대업으로써... 모든 국민중에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 속을 깊이 울려 주리라.”(교성 135 : 7)

존 테일러가 그 영감에 찬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언자로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러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기타 예언의 성취도 이 거룩한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수많은 주제를 다루는 이 훌륭한 책은 이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나의 간증으로서 엄숙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그 책을 읽고 연구하며 그 권고와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성경과 물문경, 그리고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는 모두 우리 신앙에 없어서는 안되는 경전입니다.
2. 교리와 성약은 우리의 경전 가운데서도 독특한 특색이 있으며, 교회의 구성에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3. 기본적으로, 교리와 성약은 이 경륜의 시대에 위대한 예언자를 통해 받은 계명의 책입니다.
4.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계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영감에 찬 가르침과 희망을 주는 약속과 위안과 또한 힘을 얻게 됩니다.

#### 토론시 유의 사항

1. 교리와 성약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가족에게도 그들의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2.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를 한 후에 이 토론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는가?



# “돌아오십시오”

목적 : 활동이 저조한 회원에게 교회에 돌아와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자매들에게 상기시킴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자매님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회원인 남편이 일요일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분별없는 말이나 불친절한 언사로 감정이 상한 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나 좌절감에 시달리거나, 독신생활을 하거나 자녀가 없으므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자매는 교회에 대해 의심하거나 지혜의 말씀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며,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못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여러 해 동안 비활동 회원으로 지냈습니다. 자신이 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교회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가정 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들이 방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를 권유할 때 마다 그녀는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거나 “너무 힘들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가 쓴 시편을 방문 교사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를 와드의 주보에 신재라며 그녀의 허락을 구했고, 그녀는 옹락해 주었습니다.

그 시가 실린 것을 본 어느 자매는 전에 그 자매와 우정을 나눴던 일을 기억하고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전에 가졌던 따뜻한 친분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갈 때 쯤, 방문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다시 돌아 오신다면, 무엇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와드에는 자매님이 계셔야 합니다.” 비활동 회원이었던 자매의 다음과 같은 대답에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주와 그 다음 주에도 나오지 않았으나, 그녀의 집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일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녀는 나왔습니다. 그녀는 회원들의 따뜻한 사랑과 환영을 받으며 희망과 용기를 얻고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녀는 교회에 만나오던 습관을 고치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교회에 다시 다니겠다고 마음먹게 된 동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처럼, 많은 비활동 회원 역시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우리에게는 그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돌아 오게 할 책임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펼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권유를 함으로써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엔사인, 1987년, 9월호, 3페이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네 단계를 따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생각한다.**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과 우정 증진을 하기 위해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시겠습니까?

2. **기도한다.**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과 우정 증진할 수 있도록 영감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방안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3. **꾸준히 행한다.** 처음에 쌀쌀하게 대하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단념하지 마십시오.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4. **사려깊게 행한다.** 교회에 다니는 회원도 여러 가지 시련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홀로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참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려깊은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그들이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벤슨 대관장님의 다음 제언을 따른다면,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이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양은 한눈을 팔고 있고, 어떤 양은 관심이 없으며, 또 어떤 양은 다른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양들을 찾아 사랑함으로써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같은 책, 4페이지)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중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결과로써 어떻게 증진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2.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우정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

(가정의 밤 자료집, 109~15페이지를 관련 자료로 참조한다.)



## 자녀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나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간증과 영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데스 지 캡  
청년 본부 회장

**우** 리 부부 사이에는 현재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축복이 지연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해없으시길 바라는 점은 우리는 그래도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제단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가족으로서 결합되었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가족이 늘고 확대 됩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즉시 가족을 이루며 현세에서 자녀가 없더라도 가족으로서 지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부부가 자녀가 없는 슬픔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한 분들과 함께 우리가 겪는 특별한 시련과 관련된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간증과 영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므로, 집 밖에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 생육하고 번성하라?

캡 형제와 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대부분 이해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 데, 특히 신앙으로 간구하여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금식 간증 모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 두 사람의 저녁 음식을 차리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결혼 성약을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들게 되는지 알고 있으며, 의롭게 그 영예를 누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는 물론, 부부간에도 자신의 심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온 영혼을 다 바쳐 읊처럼 외치는 듯 합니다. “내가 의로울찌라도...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욥기 10:15)

여러분은 자녀가 없는 고통을 여러 해 동안 겪다가 자녀가 없으면 창조의 목적(교성 88:19 비교)을 다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마침내 “내 영혼이 살기에 곧비하니”(욥기 10:1)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창조의 목적을 다할 수 없다면 무슨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우리 이웃에 새로 이사온 어린이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우리 아이가 밖에서 놀 수 있는지 물어보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이상한 표정으로 그의 순진한 얼굴을 찡그리더니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럼 누구세요?”

그러나 남편이 젊은 나이로 감독의 부름을 받게 되자, 우리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의롭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와드에서 그 직책을 원했던 어느 선량한 사람은 그에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은밀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감독이 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또 가족을 돕는 일에 대해 무얼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리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의 남편은 그 사람의 가족이 큰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으며 그 일로 인해 그의 가족과 든든한 사랑의 유대를 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역경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게 되는 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게 될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현재 겪을지도 모르는 마음의 상심을 내가 이해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성취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인생이란 어려움없이 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 현세에서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받는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태우거나 단련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의 하나로 선택할 일을 앞에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우리로서는, 그러한 결정이 엄청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시술은 어느 범위까지 하고자 합니까? 양자녀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일은 어떠할까? 자녀없이 생활하는 것은 어떤가? 만일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러한 선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색하는 동안, 우리는 종종 부모, 친구, 지도자, 의사 및 기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서로 다른 조언 가운데서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몇몇 부부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경험으로, 영속되는 유일한 평안은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할 일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델린 에이지 옥스 장로님은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 재임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도를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지와 관계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1981년 9월 29일에 행하신 영적인 말씀, 브리감 영 대학교 1981~82, 노변의 밤 및 영적인 모임에서의 말씀, 유타주 프로보: 대학교 출판사, 1982년, 26페이지)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나에게는 여동생이 두 명 있는데, 둘 다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막내 여동생인 셸리는 자녀가 열 한 명입니다. 또 한 여동생인 샤론에게는 육 년간 고대하다 낳은 어린 딸이

있습니다. 십 년후, 그녀 가족이 양자녀를 얻는 훌륭한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간구한 결과, 한 어린 소년이 그들 가족에게 입양되었으며,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그들에게 인봉되었습니다. 그와 다른 자녀들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여동생들과 그리고 각자의 남편들과 함께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또 상대방에 관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각기 다르게 응답해 주시며,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우리가 정한 시간에 맞춰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승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따뜻한 확신의 느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의로운 것이라 해도 그 응답은 여전히 “아니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평안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결정하신 바를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증진시키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어려운 결정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며, 그리고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데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두려운 책임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써 위대하고도 영원한 결과를 낳을 결정을 내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신앙의 시련을 겪고 난 어느 날,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이더서 12:6 참조) 그러나 그때까지 성령의 속삭임에 따라 생활하려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큰 신앙과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 봉사, 희생 및 배움

그렇다면, 그들이 이 생에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된다면, 그들 부부는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어느 날 밤, 나는 남편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좀더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연차 대회, 1961년 4월)

그 말씀은 어둠 속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좌우명이 되고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집 가정은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가져야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며, 소유한다는 것이 반드시 사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랑해 주고 인도하며, 가르쳐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남편과 나는 부모가 비이기심과 희생을 치루게 되는 상황에 끊임없이 접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진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려면, 우리 역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함께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긍정적인 자세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우리에게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끔, 우리가 주말에 둘 만의 시간을 계획할 때면 전화가 울려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시간을 미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행하면서 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의 다음 말씀에 조금이라도 미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는 [나는 형제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위로받는 사람보다도 그들 자신의 형편이 더 곤궁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관대함과 같은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의 하나입니다. ... 그들은 현재 몇 가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축복도 보류해 두지는 않습니다.”(연차 대회, 1978년 4월)

자녀가 없는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는 반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영생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애쓰는

중에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허함에 빠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렇게 행할 때, 친구의 아기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신부의 어머니와 더불어, 또한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의 어머니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손자를 두는 날에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나의 마음은 울적했습니다. 비록 나는 남편과 더불어 조카딸과 조카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지만, 연중 그러한 특별한 시기에 우리 자신의 자녀가 있는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나에게서 만사가 불공평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어둠고도 의기 소침한 기분이 들었으며, 여러 해 동안 행하도록 배운 바를 행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영감을 얻기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교리와 성약 88편 67-68절을 펼쳤을 때 나왔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

여러분에게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은 영원한 안목을 갖게 될 것이며, 고통이 아닌 평안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 해 전부터 그러한 통찰력을 받기를 무척 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에야 오는 성령의 증거로써 위안받는 가운데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 난 하늘에서 살았네

단순하게 ♩ = 48-58

F B<sup>b</sup> F B<sup>b</sup> F

1. 난 정 말 예 전 에 하 늘 예 서 살 았 네  
 2. 큰 사 랑 가 가 진 자 아 버 지 는 찾 았 네  
 3. 예 수 님 뿐 히 서 구 세 주 로 오 셴 네

B<sup>b</sup> F B<sup>b</sup> F

우 리 들 은 서 로 사 랑 하 며 살 았 네  
 생 명 광 된 그 이 름 죽 음 과 악 이 할 것 네

Gm Cm Gm Cm Gm B<sup>b</sup>m

아 버 지 홀 름 한 계 획 을 만 드 서 서  
 예 수 님 의 아 버 지 우 리 를 내 기 다 소 리 서  
 하 늘 의 아 버 지

F Dm Gm C<sup>7</sup> B<sup>b</sup> B<sup>b</sup>m F

영 원 한 구 원 을 우 리 에 게 주 셴 네  
 영 나 의 집 하 늘 로 돌 아 가 고 싶 어 리 라

작사 및 작곡 : 제닌 제이콥스 브레디, 1934년생.

© 1987년 제닌 제이콥스 브레디에 의해 관련 소유. 이 노래는 부수적이며 비 상업적으로 교회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왜 항상 아픈지 모르겠어요.”

“감염 증세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항상 가난해요.”

“토마스는 아파도 학교에 결석할 수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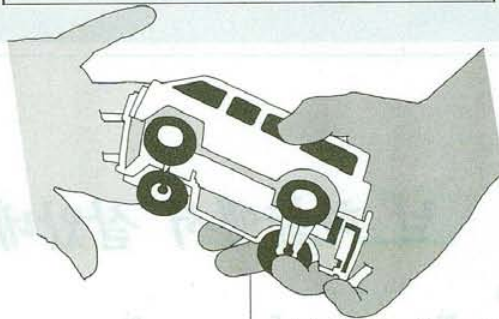
“감독님은 열이 좀 있다고 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말은 전염성 병이 퍼지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주어진 일을 완전히 성취하기를 원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와 교회에 충실히 다니기를 바라는, 헌신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나 자녀들이 아플 때라도 종종 밖에 나가 활동하며, 자녀들도 활동하도록 내 보낸다.

때로는 몸이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클 때도 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자신의 병원균을 거의 확실히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그들도 병을 앓게 하기 때문이다.

감염의 우려가 있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보조 조직 회장단 보좌들이나 감독단 보좌, 기타 원하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도와서 그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울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 집에 있어야 하는가? 전염성 병을 앓고 있을 때이다. 대부분의 전염성 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균에 의한 것이다. 전염병은 부스럼, 수두, 홍역, 눈병 및 독감 같은 것이다. 전염병 증상이나 증세에는 고열, 기침, 후두염, 콧물, 설사 또는 구토 등이 포함된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 가족 주치의나 지역



보건소에서 어떤 병이 전염병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특히 유아반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전염성 병은 아이들이 함께 놀때 빨리 번진다.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필요품들을 항상 가지고 있지 못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는 그를 돌보기 위해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

부모는 가능한 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식구들과도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픈 사람은 개인 칫대와 수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가 사용한 그릇은 물에 소독하여 병원균을 죽여야 한다. 비록 병원균이 공기를 통해 여전히 번지겠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다른 가족이 감염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아픈 사람을 얼마나 오래 격리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은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병의 증상이나 증세가 없어질 때까지의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특정한 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가를 알고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행위를 바꿀려고 노력한다면 교회 내에서의 질병의 수는 감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수가 줄어들 것이다. 약값이나 병원비도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은 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감염 위험이 있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게” 하는 것이다.

글렌 시 그리핀은 의사이며,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살고 있다.

##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할 때

글렌 시 그리핀



# 잃어버린 진리의 회복

## 1부

길버트 더블류 샤프스

물몬경이 없었다면 구세주에 관해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은 무엇인가.

“물몬경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물몬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았다는가 그 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 준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기독교 종교를 공부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나와 아내가 미국 중서부에 살고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일부였다. 누군가 우리 가족의 사진과 간증이 적힌 물몬경을 그 부인에게 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 편지에 대한 답으로 전화를 했으며,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내가 물몬경이 어떤 책인지 편지로 설명해도 되겠냐고 묻자 그 부인은 찬성했다. 나는 그 부인에게 물몬경에 대한 편지를 썼고, 물몬경에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많은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사실 나는 평생 동안 물몬경에 관한 목록을 써 왔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때 나는 물몬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더해 주는 여섯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그 뒤 지난 삼십 년간 물몬경을 읽거나 배울때마다 이 목록은 더 길어 졌다. 나는 그 고대 미대륙의 경전을 다시 읽을 때마다 목록이 계속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니파이는 시현을 통해서 말일에 성경에서 “간결하고 진지한 많은 부분”(니일 13:28 참조)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물몬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그분에 관한 잃어버린 단순한 진리의 일부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물몬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성경에서 배우는 교리를 확인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지식을 더해주고 있다.

1. 구세주의 구속은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까지 미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을 속죄의 영향에서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 역시 구속을 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 물몬경의 예언자 야콥은 그리스도의 자비로 인해 “율법 없이는 형벌이 없”(나이 9:25 참조)다고 가르쳤다. 베냐민 왕은 “저의 피는...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 곧 무지한 죄를 지은 자의 죄를 구속”(모사이야서 3:11~12

참조)하신다는 천사의 설명을 상기했다.

모로나이에게 보낸 물몬의 서한 덕분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모로나이서 8:111~12 참조)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개인의 믿음이나 행위에 관계 없이 모든 인류가 전반적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향이 제한돼 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은 부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침례와 기타 성찬의식이 부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야콥은 “주께서

# 어린 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모로나에서 8:11~12 참조)

이같이 고난을 겪으심은 만민에게 부활이 이르게 하사 저들로 큰 심판의 날에 주 앞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나이 9:22 참조)고 분명히 가르쳤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인간의 구속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구속된 것이다... 부활은 끝없는 잠을 깨어 구속을 이루게 한 것이다.”(몰몬서 9:13 참조)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공의와 자비를 이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3. 주님의 구속은 영적, 육체적인 부활을 가져 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부활에는 육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 문제에 대한 성서적 해석의 차이는 혼란을 초래하였다. 예를들어 욥기 19장 26절이 흥정역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기록되었고, 양카 성서에는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로 기록되었다.

몰몬경에는 혼란이 없다. 아담은 그의 부친 리하이 가 죽은 직후에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리라”(니파이서 9:4)고 가르쳤다. 이보다 훨씬 뒤 앰올레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육체적 죽음의 사슬을 푸신지라... 영과 육체는 원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다시 결합될 것이요, 수족과 뼈의 마디가 모두 지금 우리의 모양 그대로 회복될 것이다.”(앨마서 11:42~43 참조)고 가르쳤다.



4. 그리스도는 극심한 고통으로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렸다. 몰몬경은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통의 정도와 성격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약 성경 구절을 해명해 준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참조)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이 땀을 피방울로 비유한다고 결론을 지으며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예수께서 고통받으시며 실제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냐민왕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고통에 대한 천사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기술했다. “그는 시험을 받으며 육신의 고통과 주림과 갈증을 겪으며, ...인간이 감당치 못할 온갖 고난을 겪으시어, 보라 주의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큰 고뇌로 하여 온 몸의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 나오리라.”(모사이야서 3:7 참조)

5. 그리스도의 속죄는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개념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나, 몰몬경만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공의로우신 뜻대로 하”(모사이야서 15:9, 앨마서 42:15 참조)셨음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 앨마는 “자비가 공의를 도둑질하리라 생각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렇지 아니하다. 조금도 그럴 수 없느니라.”(앨마서 42:25 참조)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예수께서는



#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던들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으리니, 만물이 영원토록 창조된 형상대로 남았을 것이요.

(니파이이서 2:22 참조)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바치시어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하셨다.

6. 그리스도의 대속은 인간의 타락을 포함한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담의 범법을 커다란 비극이라고 생각하며, 아담과 이브는 악한 죄인이고 대속은 단지 그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믿는다. 이러한 해석은 성서적 설명이 불완전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행스럽게도, 물론경은 타락과 구속의 관계를 명시해 준다. 리하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던들...,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으리니, 만물이 “영원토록” 창조된 형상대로 남았을 것이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이브는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니파이이서 2:22~23 참조) 것이었다. 그는 또한 “비참함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함에 선을 또한 행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회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니파이이서 2:11~27 참조)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이더서 3:14 참조), 범법이 있기 오래 전부터, 구세주께서는 그의 구속 사업을 준비했다.(이더서 3:14 참조) 범법은 장애를 가져왔고, 선택의 기회를 가져 왔다. 구세주의 속죄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니파이이서 2:27 참조)

성경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물론경은



“하나님의 계획”(니이 9:13)이니, “구원해 내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니파이이서 11:5) “구원의 계획”(엘마서 12:25), “위대한 행복의 계획”(엘마서 42:8)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구원의 계획”이라는 표현은 예이롬서(예이롬서 1:2)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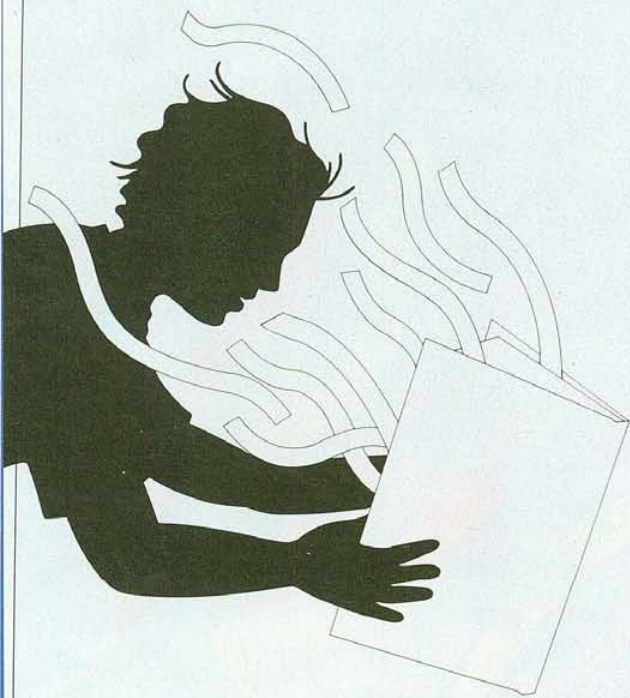
7. 구세주의 대속이 없었다면, 지상의 모든 주민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 것이다. 인간에게 행사될 수 있는 사탄의 영향력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속의 한가지 목적은 그 안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담은 “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며, 보라 만일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니이 9:8 참조)라고 가르쳤다.

물론 범법은 “인류가 육욕적인 것이 되며, 관능적인 것이 되며 선과 악을 구별하며 악마에게 복종하게”(모사이야서 16:3 참조)되어 악마가 인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아빈아다이의 설명을 기록했다. 그는 계속해서 대속은 사람이 악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모사이야서 16:4~12 참조)\*

길버트 더블류 사프스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대학 강사이다.

# 가장 흥미있는 책읽기

로버트 케이 토마스



우리는 흔히 “문학”은 흥미있는 것이려니와 재미도 있는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지만, 경전은 일반 서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종류의 즐거움은 거의 바랄 수 없는, 의무적으로 읽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경전 읽기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미리 결정한 분량을 완독한다든가 더 읽기를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이 얼마나 남았나 자주 보며, 오늘 읽어야 할 장이 길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한숨을 쉰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류를 위해 마련된 가장 흥미로운 책읽기의 일부를 새로운 안목으로 보는 것이다. 경전은 이러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경전은 연구하고 분석하며, 기도하고 숙고해야만 한다. 그러한 후에야 경전의 아름다움과

우리는 인류를 위해 마련된  
가장 흥미로운 책읽기의 일부를  
새로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중요성이 명백해진다. 진지한 독서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보상과 격려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투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오래 전에 죽은, 먼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속삭이고 우리의 가슴을 움직인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향한 그들의 기대를 채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흥미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열망을 품은 사람들을 참되게 알아야 하며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움나이서의 예언자 케미시를 생각해 보자. 니파이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케미시의 짧은 헌신을 애절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나는 내가 준비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나쳤던 지난 날의 일들을 생각했다. 케미시는 판을 기록할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판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전해졌지 형제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단지 그의 형이 기록하는 방법을 본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고,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경전을 기록하도록 명령을 받아들였다. “나의 기사를 끝맺노라.”(움나이서 9 참조) 나는 그가 나를 일깨워서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즉 그가 경전을 기록하는 자 중에 속하게 될 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친구 케미시의 예를 생생하게 기억해서 항상 명령 받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또한 그의 말씀이 행위로 가득 차 있는 이노스와 같은 사람의 열정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노스는 모든 경전을 통해서 주님의 면전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극소수 예언자의 한사람이다. “내가 기쁨으로 주를 대할 것이요,”(이노스 27 참조)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인간에게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 전 사업에 참여하게 된 안나 나다스디의 열의는 대단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 열의가 어떠했는지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나다스디 자매는 헝가리에서 태어났고, 그리스 카톨릭 신앙 속에서 자랐다.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일을 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먼 “약속의 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 주었다.

이차 대전 중 조국이 침략당했을 때 그녀는 겨우 소녀티를 벗어났다. 이 위험한 전쟁기간에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님을 관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 계보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 100년의 역사를 담은 기록부는 옥수수대 잎으로 엮은 손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싸여 있었다.

전쟁후 그녀는 결혼했다. 그녀와 남편은 헝가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여권을 얻을 수 없었다. 국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조망이 쳐지고 총을 든 군인들이 탑 위에서 지키고 있는 지뢰밭 뿐이었다. 며칠 동안 궁리한 끝에 그들은 어느날 밤 이 위험한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뢰 밭을 건너가는 고통스런 포복 중에 어느 순간이라도 지뢰에 날려 가던가 철조망에 걸려 들던가 총에 맞던가 할 수 있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스트리아로 무사히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는 입고 있는 옷과 나의 계보였습니다. 지뢰밭을 건너기가 더 어렵더라도 나는 계보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나다스디 자매는 말했다.

미국에서 후원자를 찾을 수 없었던, 이들 부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속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다스디 자매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잔디와 나무에 둘러 싸인 탑이 많은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건물이 뚜렷하게 생각났지만 그것이 무엇을 하는 건물이며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꿈에 대해 자주 생각하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했다.

1954년 나다스디 자매는 남편과 헤어졌다.

몇 년이 지나고 그녀는 공무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다스디 자매는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고 느꼈다. 이런 느낌이 점점 강해지자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고독하고 절망적인 느낌에서 그녀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 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자세히 고한 후 그녀는 “다른 길이 있다면 왜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하고 물었다.

기도를 하고난 직후에 그녀는 아파트 건물을 들어서서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만났다. 그들이 자신들을 소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났을 때, 나다스디 자매는 ‘내가 주님과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이 두 젊은이는 이미 내 생활 속으로 오고 있었다. 확실히 그들은 나를 위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거야.’하고 생각했다.

나다스디 자매는 복음 메시지를 잘 받아 들었다. 그들이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을 보여 주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으며, 꿈 속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건물을 기억했다. “의자 팔걸이에 기대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마룻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라고 그녀는 후에 말했다. 그녀의 예민한 관심을 직감한 장로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의 교리를 설명했다.

“내가 헝가리를 떠날 때 왜 계보를 가져왔는지 드디어 이해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선교사들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교회에 속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하러 언젠가 솔트레이크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다스디 자매는 침례를 받았으며, 자신과 가족의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부터 솔트레이크까지의 긴 왕복 여행을 했다.

1983년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땅 헝가리를 방문한 후 나머지 생애를 보내며 오래전부터 꿈꾸어 왔던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로 이사했다. \*

“내가 헝가리를  
떠날 때 왜 계보를 가져왔는지  
드디어 이해했어요.”

# “한 시간만 있어야지”

로버트 케이 레이

나는 오랫동안 복음에 대한 열의는 새로운 개종자나 막 귀환한 지 얼마 안되는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복음은 참되었지만 나에게에는 살아있지 않았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마 5:41 참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데 몇 년이 걸렸다.

나는 오년 동안 교회에서 비활동적이었다. 다시 활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전심을 다해 복음 생활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실망하기 시작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회원들은 그리스도 복음 생활의 이상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았고, 할 일을 게을리 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나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은 비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으나, 내 생각은 직장 문제에 중심을 두기 시작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점차 형식적인 것 같아졌다. 복음은 나의 심원한 성취의 원천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표준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좀더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큰 부름을 받고 교회 간행물에서 대회 말씀을 읽고 와드 합창단 연습에 참석하려고 노력했다. 가정 복음 교사로서 나는 내가 맡은 가족들을 열심히 도왔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영적인 느낌을 갖지 못했다. 내가 정말 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그때 나는 색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신권회에서 어느 부부가 이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광고가 있었다. 평소 나는 그런 광고를 내가 그들을 모르면 그들의 친한 친구나 친척들이 도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무시했었다. 나는 또한 학교 공부하기에 바빠서 시간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약속된 날 나는 그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고 그들이 생각할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그 집안에 들어가서 밖에 있는 트럭으로 내가야 할 짐더미를 보았을 때, 나는 힘이 쭉 빠져 버렸다. “한 시간만 있어야지. 그러면 내 의무는 하는 것이니까.”하고 생각했다.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물건들을 트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 작은 기적이 생겼다. 나는 그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자신을 바치고 트럭에 짐을 다 실릴 때까지 오후 내내 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땀에 젖었지만 기분이 매우 좋았다.

다음 날 새벽 네 시에 나는 기분 좋게 깨어났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닌 것을 했고, 그것이 기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항상 그런 기분이었으면 좋겠군.”하고 생각했다. 언젠가 나는 총관리 역원 한 분이 자신에게도 남들처럼 생의 굴곡이 있었으며, 그는 단지 좋은 때를 잘 이용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도 그것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털어 놓았다. 따뜻함이 나를 감싸는 느낌을 받고 눈물이 나도

“가정의 밤을 하기 위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두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년 전 참석했던 어느 모임에서 한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가 이렇게 질문한 일이 있었다. 그의 대답은 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가정의 밤이라니? 그것이 사실상 타당한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그 제안을 들은 이후 여러 해 동안, 갖가지 가정의 밤에 참석했는데, 다른 독신들과 함께 하기도 했고(자외든 지명을 받아서든) 실제로 혼자서 가정의 밤을 가져본 일도 있었다. 나는 가정의 밤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았다.

처음 교회에 속한 몇 년 동안, 나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정의 밤 모임에 초대되었던 것을 특별히 감사드린다. 참가자라기 보다는 관측자와 같은 느낌을 느끼기가 쉬웠지만, 가정의 밤에 참여하면서 나는 말일성도 가정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운영되는가를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독신 성인 시절부터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이 경험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성공적인 가정의 밤 계획으로 달리 꼽을 수 있었던 것은 텍사스에서 친한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이었다. 우리는 일요일에 만나 공과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의 집과 우리 집에서 한 주일씩 번갈아 가며 했다. 우리 두 사람은 각자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공과를 하고 우정을 나누는 외에도 모임을 하면서 멋진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구실도 갖게 되었다.

다른 독신들과 함께 한 것은 여러 모로 축복이 되었다. 파티를 여는 데만 관심을 가진 그룹들도 있었지만, 한 가족처럼 가까이 지낸 사람들도 있었다. 때로는 활동을 계획하는 데 일치하기 힘든 때도 많았다.

요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은 월요일 밤에 세상으로 향한 문을 닫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활동과 보통 다른 날의 저녁 시간과는 차이가 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정확하게 어떤 훌륭한 활동을 선택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회 기도는 필수적이다. 그 때는 영의 임재하심이 다소 차이가 있다. 나는 서재에서 어떤 의문점을 경전 속에서 찾아 보든가 그에 관한 것을 서재에서 찾아 보든가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문화 활동을 추구할 수도 있다. 저녁 시간은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흔히, 그 시간에 얻은 지식은 내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전에 썼던 가정의 밤 공과 책과 현재 쓰고 있는 가정의 밤 자료집(한국 출판부에서 구입할 수 있음)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족과 가족 관계에 관한 공과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인간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직업적인 생활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독신들에게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과는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때 필요함을 증명할 것이라는 복음 안에서 희망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가족 중심의 공과 외에도 우리와 같은 독신 생활자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공과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과도 많이 있다.

어느 날 나는 가정의 밤 시간에,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고, 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면서 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시 한번 나는 개인적인 계시와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후 얼마 안되어 나는 목표 설정을 위한 가정의 밤을 계획했다. 나는 종종 주변의 문제...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목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정의 밤을 하면서 나는 영원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재조정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표준에 비추어 우리의 생활과 활동을 살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전을 방문하는 것과 같이 가정의 밤은 우리에게 성도의 표준을 지키지 않는 대중 매체와 동료 직원들, 기타 사람들의 음성을 멀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며 우리가 존중하는 이상을 향해 재 다짐할 수 있다.

독신 회원들을 위한 기타 가정의 밤 활동으로는 좋은 책 읽기, 가족 역사 및 선교 사업, 복지 및 봉사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다.

때때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해도 영적인 양식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정의 밤은 나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지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의 고독한 가정의 밤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독신 생활자의 가정의 밤 활동 방법은 개개인에게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상황과 개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독신 회원들은 가정의 밤이 다만 전통적인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나는 가정의 밤은 독신 생활에도 축복이 됨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주디스 에프 바튼은 뱁거 메인 스테이크의 링컨 지부에 살고 있다.



# 팀파노고스 산에서의 하룻밤

스토틀 카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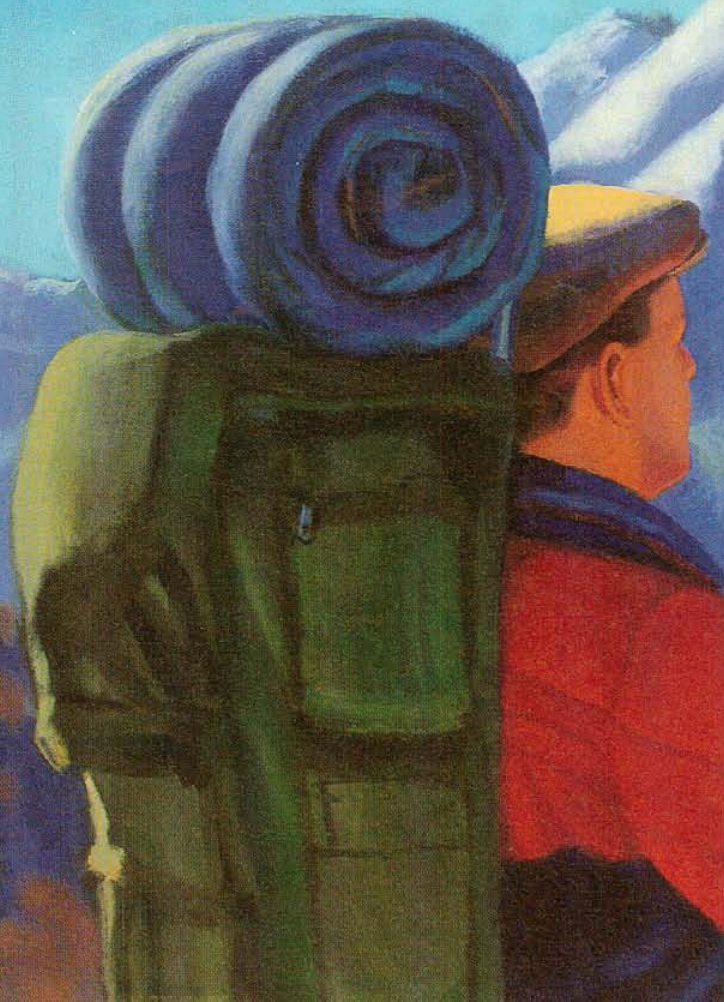
어느덧 해가 저서 마을 건너편 산 뒤로 넘어 가자, 해발 3,100미터 산정의 공기는 제법 쌀쌀했다. 별들이 차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타 벨리의 주머니들이 따뜻한 집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듯, 내 발 밑으로 2,100미터 되는 곳에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거렸다.

나는 침낭 속에서 안락함을 느꼈지만, 스스로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난 10월, 팀파노고스 산 정상까지 눈과 얼음을 헤치며 올라가게 된 그 이상한 충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등반은 매우 힘들었으며 날씨도 추웠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법과 대학 2학년 학생으로서 등반 경험이 많았으나 최근 몇 달 동안은 산에 간 적이 없었다. 가을이 깊어져 첫눈이 내려 산 등성을 덮었으나, 나는 갑자기 팀파노고스 산 정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는 것 밖에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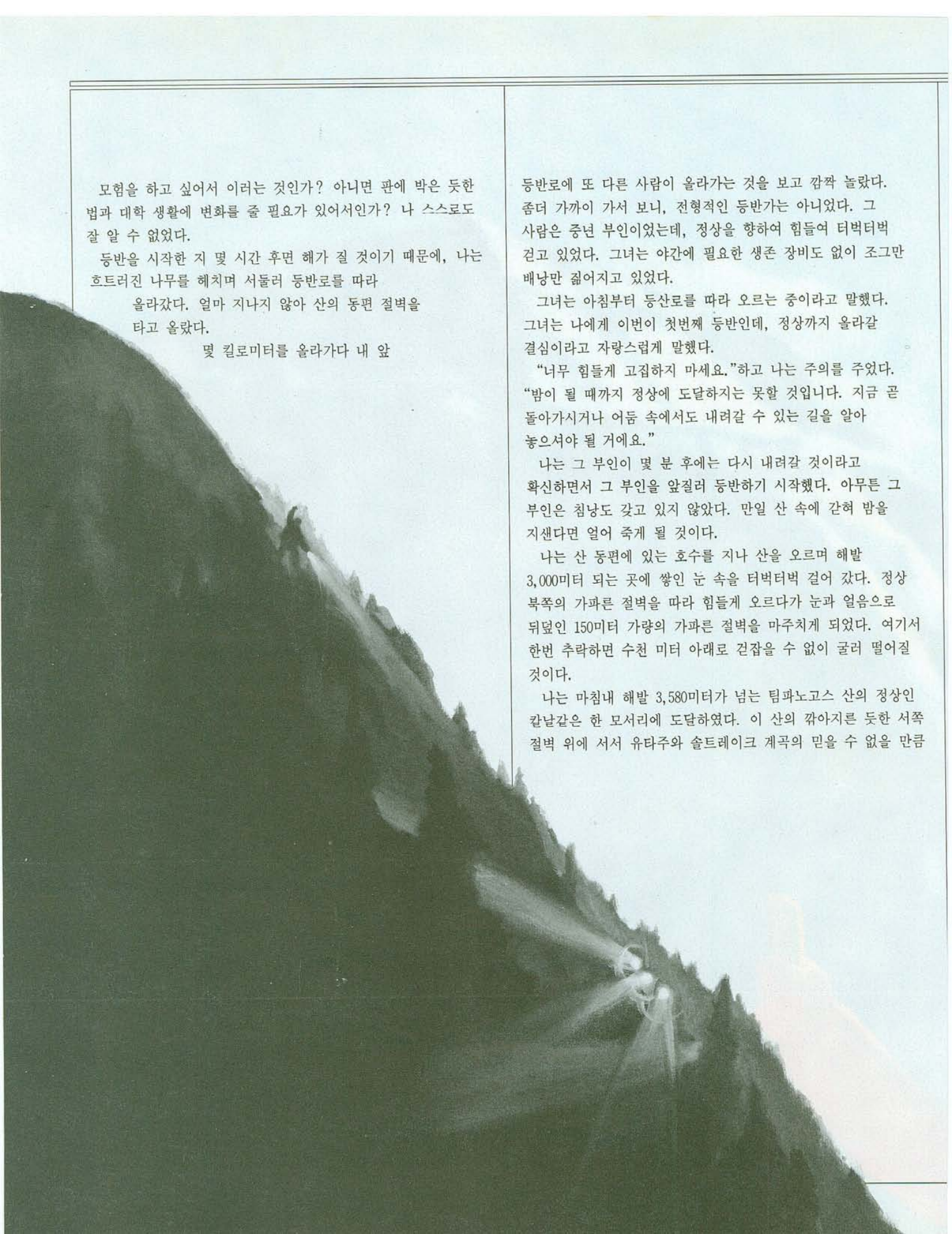
그것은 세정신이 아닌 생각 같았으나, 정오에 나는 등산 장비를 배낭에 꾸러 넣고 산의 등반로가 시작되는 협곡까지 차를 몰고 갔다.

“가을이 깊어져 첫눈이 내려 산 등성을 덮었으나, 나는 갑자기 팀파노고스 산 정상에서 하룻 밤을 보내고 싶다는 것 밖에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Mark Brauner



모험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판에 박은 듯한 법과 대학 생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서인가? 나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다.

등반을 시작한 지 몇 시간 후면 해가 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흐트러진 나무를 헤치며 서둘러 등반로를 따라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의 동편 절벽을 타고 올랐다.

몇 킬로미터를 올라가다 내 앞

등반로에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좀더 가까이 가서 보니, 전형적인 등반가는 아니었다. 그 사람은 중년 부인이었는데, 정상으로 향하여 힘들어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그녀는 야간에 필요한 생존 장비도 없이 조그만 배낭만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등산로를 따라 오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이번이 첫번째 등반인데, 정상까지 올라갈 결심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너무 힘들게 고집하지 마세요.”하고 나는 주의를 주었다. “밤이 될 때까지 정상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곧 돌아가시거나 어둠 속에서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알아 놓으셔야 될 거예요.”

나는 그 부인이 몇 분 후에는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부인을 앞질러 등반하기 시작했다. 아무튼 그 부인은 침낭도 갖고 있지 않았다. 만일 산 속에 갇혀 밤을 지낸다면 얼어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산 동편에 있는 호수를 지나 산을 오르며 해발 3,000미터 되는 곳에 쌓인 눈 속을 터벅터벅 걸어 갔다. 정상 북쪽의 가파른 절벽을 따라 힘들게 오르다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150미터 가량의 가파른 절벽을 마주치게 되었다. 여기서 한번 추락하면 수천 미터 아래로 건잡을 수 없이 굴러 떨어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해발 3,580미터가 넘는 팀파노고스 산의 정상인 칼날같은 한 모서리에 도달하였다. 이 산의 깎아지른 듯한 서쪽 절벽 위에 서서 유타주와 솔트레이크 계곡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나는 정상에 설치된 지붕달린 조그만 은신처 안에다 침낭을 폈다. 돌바닥이라 그리 편안하지는 않았으나, 허리 높이로 세워진 철계 벽이 있으므로 굴러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았다.

해가 지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몇 분간 경치를 감상하다가, 밤이 올 것을 대비해 따뜻한 침낭 속으로 돌아갔다.

나는 잠이 들었는데, 꿈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도움을 요청하며 외치는 소리였다. 그 외침이 계속되자, 나는 마침내 침낭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외치는 소리는 저 멀리 아래에서 들려왔으나 맑은 밤 공기를 통하여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누군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얼음덮인 산 속을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바지와 옷을 입고 외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회중 전등을 비추며 나아갔다. 나는 철혹같은 어둠 속에서 그 중년 부인이 300미터되는 벼랑 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두워지자 산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하고 그 부인은 설명했다. 그녀는 침착한 듯이 보이려고 애썼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보아 매우 놀랐음에 틀림없었다. “길을 잃어 버렸어요. 정상까지 이렇게 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한 시간 전에는 회중 전등도 절벽에서 떨어 뜨렸어요.”

그 부인은 정상에 이를 때까지 몸을 떨면서도 계속 이야기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제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아직도 등반로 기슭에 있는 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의 은신처로 돌아와서, 나는 그 부인에게 내 침낭을 주며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몸이 크게 떨리는지 마침내 받아들였다. 나는 따뜻한 옷은 모두 다 꺼내 입고 그 부인의 여분의 스웨터로 몸을 감쌌다. 그날 밤은 아마도 내 생애에서 가장 길고도 추운 밤이었을 것이다.

나는 너무 추워 잠들 수 없었으며, 그 부인 역시 너무 흥분된 상태였으므로,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나는 유명한 박물학자인 존 뮤어가 생각났는데, 그는 한 밤중에 알래스카의 빙하 가운데 갇히게 되었을 때 아침이 올 때까지 스코틀랜드의 지그 춤을 춤으로써 살아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런 춤을 추어야 할 만큼 날씨가 춥지 않기를 바랐다.

셋째 영하 15도인 오전 4시에, 우리는 450미터 아래에서 수색 및 구조대가 비추는 회중 전등의 불빛을 보았다. 나는 회중 전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그 부인이 안전하다고 소리쳐 알렸다. “날이 밝으면 곧 내려 가겠으니 기다리세요.”하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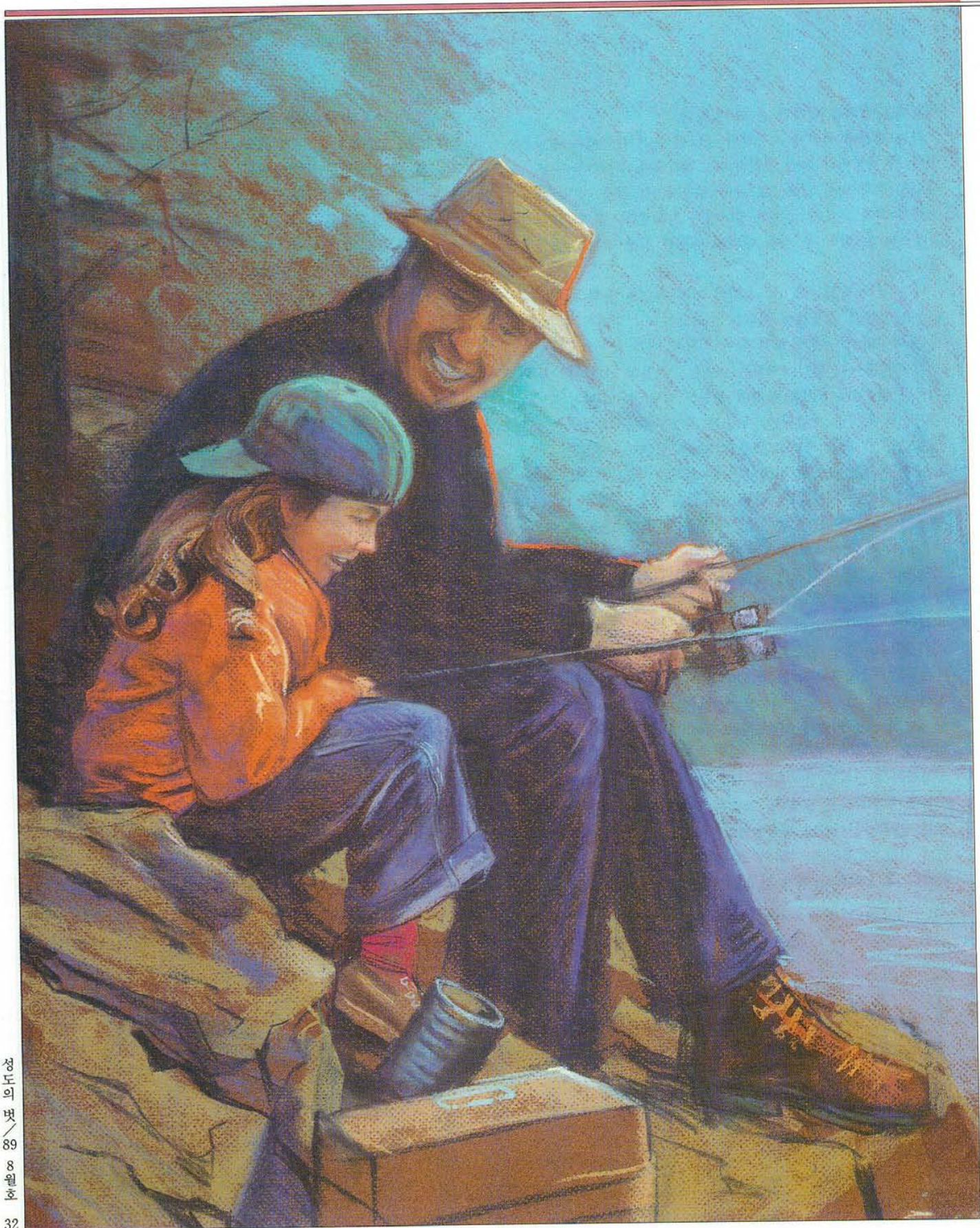
소리는 고요한 산의 공기를 뚫고 그대로 전달되었다. “알았어요!”하고 먼 곳에서 대답하는 소리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산에 여명이 밝아오자, 우리는 얼음덮인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부인과 나는 구조대에 이르기 전에 눈 속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렸다. 해발 3,000미터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진실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진대, 하물며 나의 새로운 친구에 있어서라.

우리가 마침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부인의 남편은 기쁨과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날 새벽에 우리가 비추는 불빛을 보기 전에는 그녀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색 및 구조 자원 봉사대 역시 우리를 보고 안심했다. 그들은 매년 산에서 온 나쁜 등산객들의 시체를 치우게 된다고 말했다.

나는 왜 제 철도 아닌데 팀파노고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잠을 자려고 했을까? 나는 그 부인을 산 정상에서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도록 인도되었다는 확신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갖고 있다. 나는 산에 올라가려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따라서 옳은 일을 했던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3,000미터 고지에서도 신비스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스코트 키어런 형제는 변호사로서, 솔트레이크 밀크릭 스테이크, 밀크릭 제5와드의 장로이다.



# 부모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몰몬경

케리 브링리

**주**일이 지나 갈수록 나의 좌절감도 커져 갔다. 세 명의 개구장이 꼬마들과 곧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게 될 분주한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주부로서 나는 영적으로 고양되어 있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을 알았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도움은 되었지만 남편은 지명을 받고 자주 떨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이면 혼자 남아서 쿵광대며 뛰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라, 우는 애들 달래라, 또 아기 기저귀 갈아 채우라 분주하게 보냈다. 나의 영은 필사적으로 양분을 얻기를 갈망했다.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몰랐다. 수없이 많은 공과에서 여러번 되풀이 되어 들어 왔던 말들이 나의 마음 속에 낙인이 찍히듯 새겨져 있었다.

항상 기도하라  
경전을 상고하라  
계명을 지키라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었고 기도하였으며, 아니면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대로 경전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단지 경전을 자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시간을 집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쫓기다 보니, 경전 같은 영적 고양을 위한 책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상자의 안내문조차 읽을 시간이 없었다.

게다가, 리하이 가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여행하는 것과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몰몬경 어느 장 어느 구절에 두살 난 고집쟁이를 목욕시키는 방법이나 네살 짜리 아이에게 장난감을 정리하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가? 나는 다음 전쟁에서 니파이인과 레이멘인중 누가 이길 것인가에 관한 것보다 더 관심을 쏟아야 할 해당 사항이 많이 있다고 확신했다. 나에게서 서로 계속 싸워대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다.

그런 상태로 일주일이나 지나고 한 달이 흘러 갔다. 집안 일과 교회의 책임만 잔뜩 쌓였다. 나는 아이들의 요구와 필요 사항을 기꺼이 들어 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내가 현세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경전을 읽을 시간을 찾을 수 없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해야 할 일은 다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기쁨, 마음의 평화라는 약속된 축복은 어디 있던 말인가? 마루나 쓸고 기저귀나 갈면서 대체 어떤 영적인 발전을 얻을 수 있던 말인가? 일상의 허드렛 일들과 자녀 양육의 책임은 내 영이 굶주려 찾는 해의 왕국의 평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무언가 행해져야 했다. 나의 영혼은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절망적이었다. 나는 하루에 두 세번씩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 둘이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대화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진실로 마음을 털어 놓았다.

몇주 후 감독님이 나를 상호부조회 영적인 생활 공과 교사로



겪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싸우고, 작은 일을 거들어 달라는 내 요청을 무시하여 끝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하고, 심기가 불편할 때 장난치고 앞에 나서고는 하였다. 얼마서 36~42장에서 엘마가 그의 아들들과 접견 한 내용은 그가 자기 아들들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었으며, 아들 각자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었는가를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남편 더글라스와 나는 아이들과 각각 규칙적으로 접견을 하고 그들과 개별적으로 같이 놀아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애들 각자를 위해 특정한 날을 정해 두도록 도왔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덜 소란스럽고 좀더 개인적인 것이 되게 했다.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대해 주자, 그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이들은 자신과 가정에서 그들의 위치를 좀더 확실하게 알기 시작하면서 서로 더 잘 협력하기 시작했다.

훌륭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다른 예는 니파이서 28장 30절에 있다. 그 구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을 가르치신다고 설명하신다. 우리는 신앙과 순종심이 발전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이 원리를

불렀다. 그것은 내가 기대하던 종류의 도움은 아니었지만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 부름은 내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공과 준비를 위해 매일 공부하며 준비 하는 중에 두 가지를 배웠다. 첫째, 충분히 자극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경전을 읽을 시간을 찾아낸 것이다. 둘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해 보았을때, 경전에는 모든 의문과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 있음을 발견한 사실이있다.

어느 날 나는 만일 경전이 상호부조회 교재에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자녀를 기르는 데 대한 질문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예가 나올 때마다 간략한 노트와 함께 그 구절들을 적었다. 다 마치고 난 다음 나는 내가 찾아 적어 놓은 예에서 원리를 정하고,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나는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는 데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시켰을 때, 우리는 아이들 각자가 연령별로 이해하고, 행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이들이 다룰 수 있는 정도 이상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경전 공부를 일상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서, 나는 또한 내가 계명을 얼마나 지켰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태도를 바꿈으로써, 나는 집안 일과 부모가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부모님과 같이 되도록 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다투고, 빨래감과 설거지할 접시들이 수북이 쌓여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갖기가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식의 방해를 받는 것은 나의 영이 영양 실조로 고통받고 있지 않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상호부조회 공과를 하면서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이나 문제는 없음을 자신있게 간증할 수 있다.\*



# 자녀 양육에 대한 몰몬경의 가르침

다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몰몬경의 자녀 양육에 관한 구절들이다. 이 외에 각 원리에 적용되는 다른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원리	참조 성구	적 용
1. 아버지(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자녀들을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니파이일서 1:1, 15:30, 16:23~27)	아버지는 가정의 밤을 감리하고 가족에게 간증하고, 가족과 함께 매일 경전 공부를 하고, 모범을 보이며, 매일 가족 기도를 지휘하고, 가족 회의를 감리하며, 자신의 신권을 존중한다.
2. 부모로서의 책임은 양쪽 모두, 자녀가 유아일 때부터 시작되며, 그 역할은 영원하다.	(니파이이서 4:5~6; 엘마서 56:47~48; 모사이야서 27)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신뢰를 키우기 위해 친절하고 꾸준한 관계가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
3. 자녀와 개별적 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엘마서 36:42)	규칙적으로 개인 집견을 한다. 자녀와 개별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해준다.
4. 자녀를 개별적으로 알아야 한다.	(니파이삼서 26:9)	여러 가지 발전 단계에 있는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 알아낸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그들 자신을 믿기에 앞서 부모를 믿을 줄을 알아야 한다.
5. 부모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기꺼이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한다.	(엘마서 36)	부모로서의 실수, 잘못 꾸짖음, 가혹함 등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6. 자녀는 모범으로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운다.	(니파이삼서 27:21, 27; 엘마서 25:17)	안식일, 양서나 건전한 영화, 교육, 자제심, 정직, 권능에 대한 존경심 등의 가치를 설명한다.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자녀와 함께 토론한다.
7. 자녀는 칭찬과 긍정적인 도움 및 부모로서의 신념과 믿음을 표현할 때 가장 잘 배운다.	(니파이삼서 27~30; 힐라맨서 10:5; 이노스서 1:1~8)	자녀가 잘할 수 있음을 믿고, 잘했을 경우 칭찬한다. 실패한 경우, 여러분이 실망했으나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며, 다시 시도하도록 기꺼이 돕겠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헌법 100주년 기념 삼육대학교 인성교육

삼육대학교 인성교육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  
삼육대학교 인성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sy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리	참조 성구	적 용
8. 필요하면 자녀를 바로 잡아주고, 그 뒤에 충분한 사랑을 보여준다.	(힐라맨서 15:3; 이더서 2:14)	자녀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주의한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친다.
9. 규칙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를 인정한다.	(니파이일서 8:37~38; 엘마서 30; 니파이삼서 27:16~20 이더서 3:19, 26)	자녀와 함께 규칙을 세우고, 결과를 토론하고,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시킨다. “내가 그렇게 될거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결과를 자녀와 함께 이야기한다.
10. 자녀들에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엘마서 24:12~18; 힐라맨서 14:30~31)	자녀들에게 확신과 지혜를 키워 주기 위해 어렸을 때에도 작은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 그들은 자라서 더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1. 참을성있게 귀 기울이고 너무 성급히 충고하든가 꾸짖지 않는다.	(엘마서 20-부정적인 아버지의 역할의 예)	사물은 겉보기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자녀들을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 너무 빨리 도움을 주려 하지 말고, 그들이 해결책을 결정하도록 돕는다.
12. 훈계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적용시켜야 한다.	(모사이야서 26:25~36; 엘마서 30:43~53; 모사이야서 4:14~15)	자녀 각각에게 맞는 규율 방법을 채택한다. 잘못을 범한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특정한 장소나 방으로 데려간다.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멀리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한다. 자녀에게 서로 싸우던 형제 자매와 함께 알하도록 한다.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돕고, 서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각자의 입장에서 행동하게 한다.
13. 자녀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가르친다.	(모사이야서 4:15~16, 6:6~7)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자녀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다.

# 음주벽

## 알콜 중독이 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생활

앤 로렌스(가명)

**이** 이야기는 나의 성장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생길 수 있으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희망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에서 왼쪽에 있는 난은 알콜 중독자의 자녀에게 주는 제언이고 오른쪽에 있는 난은 이들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주는 제언입니다.

내가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중 어느 누구도 알콜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편의상 여기서는 부모중 한 분을 아버지로, 자녀를 딸로 언급했습니다.

### 나의 이야기

아버지는 자신이 알콜 중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맥주만 마실 뿐이며 맥주만 마시는 사람은 알콜 중독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믿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버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이삼일간 사라졌다가 만취가 되어서 집에 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술마시러 간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화가날 때면 집을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아버지를 화나게 했습니다.

내가 울어도 아버지는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도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내가 적합한 말을 하지 않아도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가끔 나는 잘못 말할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대체로 아버지는 금요일 밤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나는 행동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므로 술을

### 만일 아버지가 알콜 중독자라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알콜 중독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쁘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해도 여러분의 아버지는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가 술을 안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아버지는 계속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역시 여러분 아버지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 여러분 친구의 아버지가 알콜 중독자라면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는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별로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깨우쳐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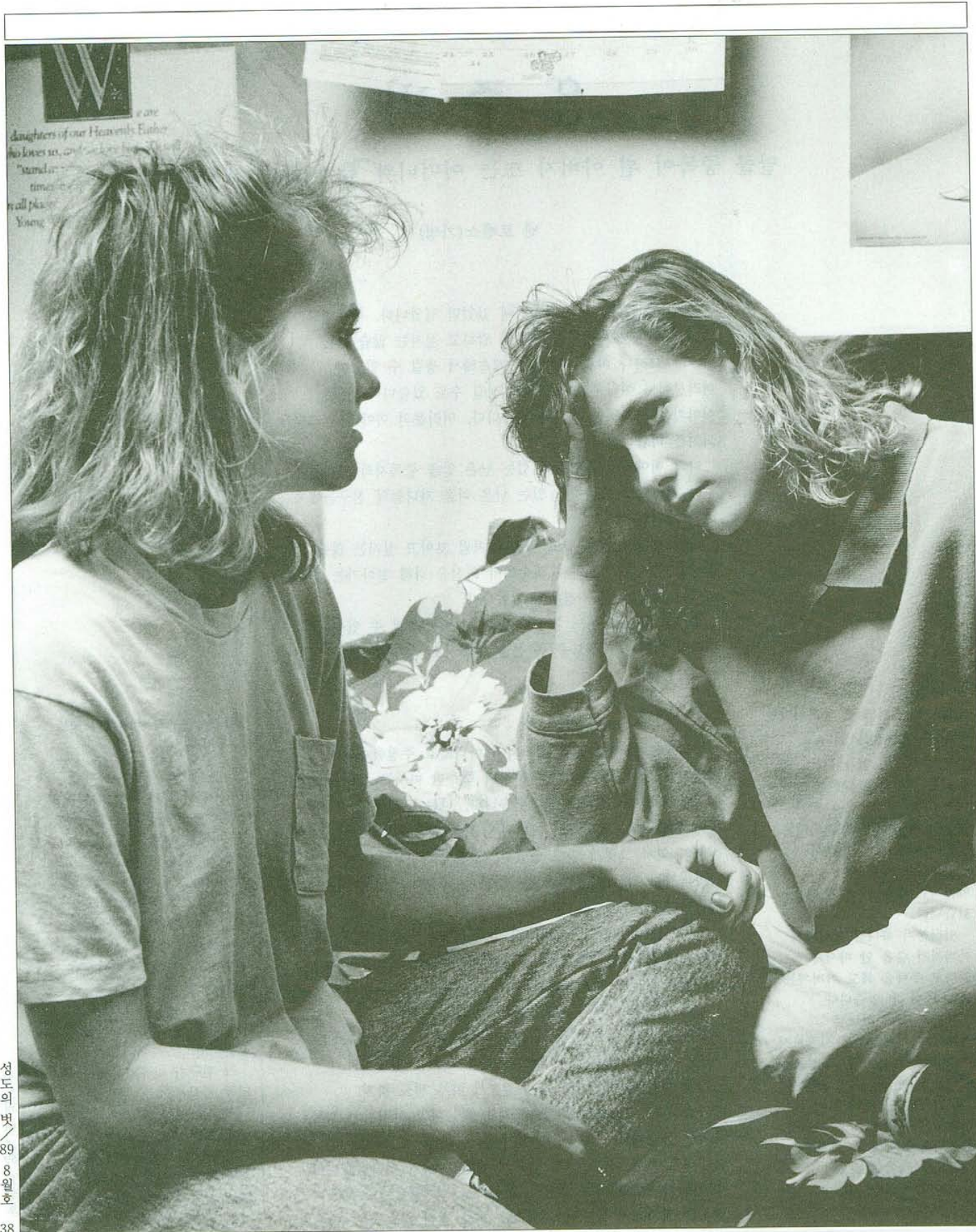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계속 술을 마실 경우 그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가 자유의지에 관해 알게 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부심을 갖게 도와 주십시오.

진정으로 칭찬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면 안됩니다.

그 친구의 노력이



# 알

알콜 중독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혼자 진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버지는 금요일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그것은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이러한 사고 방식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는 행동을 잘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모두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다시는 술마시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을 끊도록 해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나는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보니 나는 항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  
한다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 비결

나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가집  
가족은 함께 예배보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함께 즐거운 놀이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마치 그 당시 어린 아이였던  
것처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술마시는 남자와 사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거듭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그건 비밀로  
하는거야.”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나와 같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짐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었을 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그런 가정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그 노력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시오.

## 비결

여러분 친구의 가정 생활을  
캐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친구가 말할길 원한다면  
말을 방해하거나 충고하지 말고  
그 고통을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때때로 “무척 마음이  
아프겠군요.”라고 하던가 또는  
“정말 힘들겠군요.”라고 말하면  
그 친구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나 아버지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어떻게 행동하거나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해  
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야기를 듣고 염려해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 소외감

교회에 혼자 오니 외롭습니다.  
 성전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 활동에 대한 생각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형제 자매이며 여러분 와드에는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친절하고 사랑스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가깝게 지내며 그들 역시 여러분에게 가까이 대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성전 결혼을 하고 활동적이 되기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가 교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시오. 교회 활동을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설득하십시오.

### 두려움

여러분의 생활은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혼에 대한 두려움, 수치에 대한 두려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개 두려움은 현실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두 가지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시며,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신뢰할만한 성인

### 소외감

성찬식때면 나는 다른 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보면서 미소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곳에 계셨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한 와드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을 위한 파티가 있을 때 나는 그 모임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는 했지만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날에 우리 와드에서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장미 꽃을 달아 드렸습니다. 나는 꽃밭에서 장미꽃 따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임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 모임에서 성전 결혼에 대해 회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나의 가족이 유별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한 우리는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부모님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교회 공과 모임에서 성전 결혼에 관해 가르칠 때면 앉아있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성전 결혼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인봉되어서 기쁩니다.

### 두려움

나는 매우 두려워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 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치어 죽게 하는 일은 없을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밤 늦게 나는 불을 모두 끄고 침대에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버지의 차가 돌아오는 소리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오시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침이면 나는 차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지켜보곤 하였습니다. 때때로 차가 집에 거의 부딪칠 정도로 주차되어 있었고, 어떤 때에는 이웃집 화단 안에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당혹케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덜 깬 채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했으며, 술 냄새를 풍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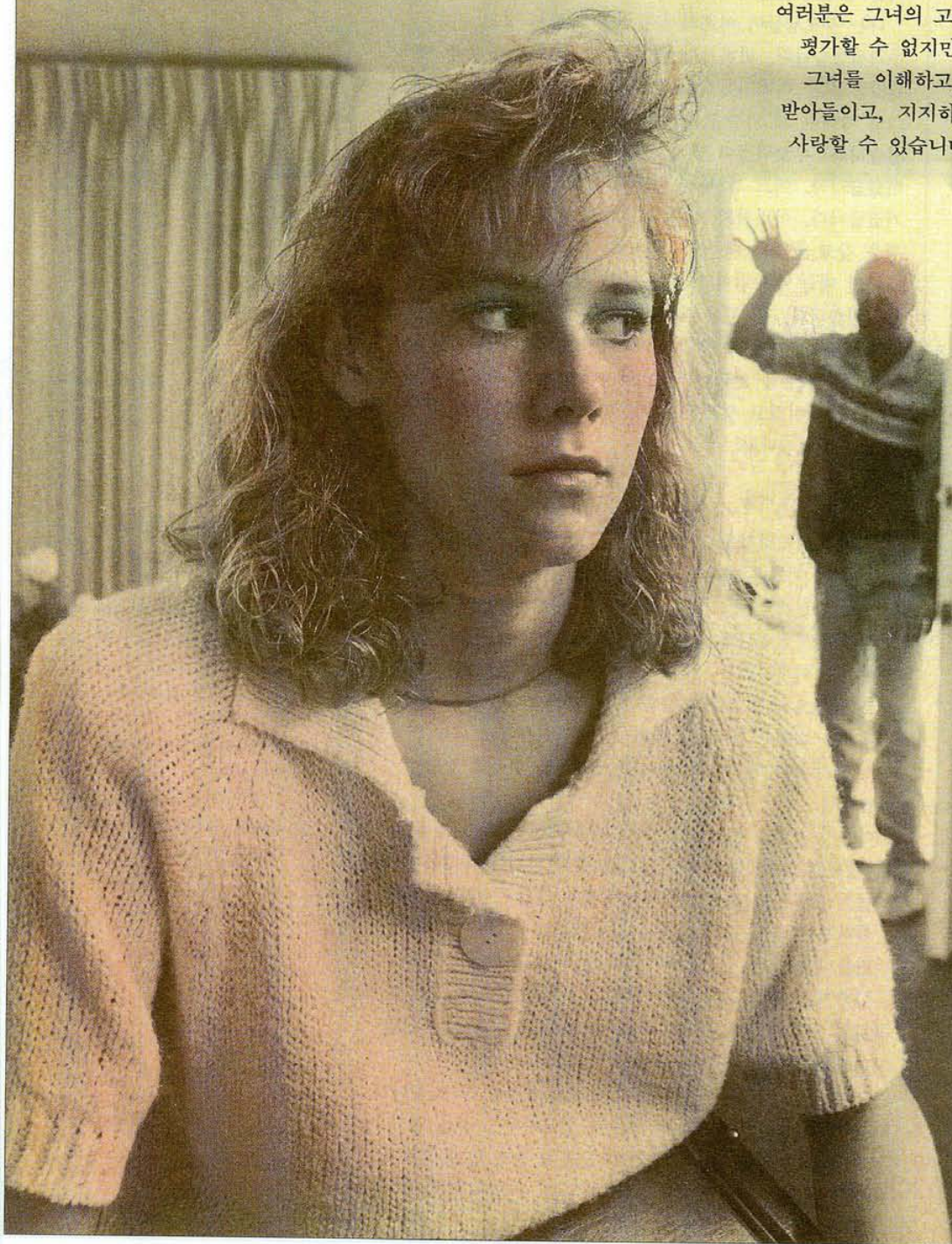
### 소외감

그 친구에게는 교회 모임 및 활동조차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그녀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가족과 함께 앉도록 권유하십시오.  
 부녀가 함께 하는 활동이 있을 때는 그 친구가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하도록 하거나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 주십시오.  
 부모에게 인봉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성전 결혼에 관한 공과가 매우 슬프게 들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 다루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날에 교회에서 아버지들이 꽃이나 카드를 받는다면 그 친구에게도 권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시오.

### 두려움

여러분의 친구는 그녀의 아버지가 음주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으실까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부모님들이 이혼할까 두려워하거나 이 고통스런 날들이 계속될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놀라게 할까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두려움 중에서 마지막 사항만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시오. 다른

여러분의 친구는 다른 세상—  
충분한 이유가 있는  
두려움이 가득한,  
간단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고통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당자에게 진정한 위협과 가상적인 위협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십시오. 두려워할 실제 상황이 너무도 많다면 가상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노여움**

만일 때때로 아버지에게 화가 나거나 그 자녀가 된 것이 싫다고 느껴진다면, 그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실에 관해서 죄의식을 갖지는 마십시오.

용서란 쉽게 체득할 수 있는 미덕이 아닙니다. 누구도 시간을 정해 여러분을 독촉하지는 않습니다.

풍기며 상스러운 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들은 계속 나를 좋아했지만, 그 사실 역시 나를 당혹케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들이 이혼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두 분이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검은 가죽 가방을 갖고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그 가방을 꺼내서 옷 가지들을 챙겨 넣고는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닳아 싸우면 나는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흰 주머니 칼을 몰래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만일 떠난다면 무엇이랴도 하나 아버지 것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같이 살게 되면 나는 멋진 가정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면 나는 어머니와 함께 외가집에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노여움**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면 미남 미녀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재치있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멋있고 재치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혐오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부자리를 적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침대 시트와 담요를 벗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크고 젖은 침대요를 뒤집는 일 역시 내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밀거나 당기다가 풍겨나는 고약한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토해냈습니다. 어떤 때에는 계속 토했습니다. 내 방은 화장실 옆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베개에다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나는 그 역겨운 냄새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웃도 입지 않고 집 안을 돌아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나를 때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녀들을 때리고 가족을 못살게 겁니다.

이제 나는 성인이 되었으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콜 중독이 질병이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친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해내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친과 함께 살 때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도 여러분의 우정에 의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

술취한 사람들은 혐오스런 일을 합니다. 자녀들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이러한 행위에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느낀 사실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단지 그 분노를 자제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 성탄절기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휴일을 가능한 행복하게 꾸미도록 하십시오. 모든 휴일의 진정한 기쁨은 봉사하는 데서 옵니다.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께 봉사하여 그들의 마음을 밝게 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의 가장 큰 임무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헛되게 눈물을 흘리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 주시지도 않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교사와 지도자, 그리고 친구들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일까지 완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점차로 개선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성탄절기

그날은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나는 금박지로 만든 꽃과 감박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우울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술집에선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술은 내 생일을 망쳐 놓았으며 추수 감사절도 망쳐 놓았고 설날, 부활절 등 기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들을 모두 망쳐 놓았습니다.

휴일은 대개 연중 가장 슬프고 쓸쓸하며 고통스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이제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셨음을 믿습니다. 알콜 중독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다니셨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알콜 중독자를 위한 상담자를 찾아 갔어도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혐오스럽게 조차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당혹스럽기도 했으며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긴 적도 있었으며 두려워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웃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지 않을 때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 중 한 명이 내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지낸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엔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즐거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뇌리에 강하게 와 닿는 어렸을 때의 추억은 모두 술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술은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갑니다. 많은 즐거운 날들은 지나가고 조속한 책임감만 남았습니다. 행복한 날이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죄의식에 사로 잡힌 날들 뿐이었습니다. 솔직함과 신뢰감이 깎여야 할 자리를 비밀이 차지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멀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힘을 합쳐 도와준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 성탄절기

휴일이 친구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친구를 잊지 마십시오. 친구를 여러분 가정으로 초대하십시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그 친구가 공휴일을 여러분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십시오.

### 이제 어떻게

여러분의 친구는 조금은 다른 세상, 즉 두려움에 가득차 있으며 간단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를 크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그러나 "계획된 일"이나 지명받은 일처럼 한 두달만 열심히 하고 돌아서 떠나가지는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녀에게는 사람들을 불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를 존중하고 여러분에게 털어놓는 비밀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녀의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가정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친구와 더불어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도록 여러분은 도울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헨리 비 아이어링 관리 감독단 제1보좌

시간은 우리가 그 시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마치 물질적인 유산을 사용하듯이 유익하게 써야 할 “자본”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시간을 어리석게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거나 노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게으름을 부리고 생각없이 흥미거리만 쫓아 다니다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스럽지 못한 어떤 것을 보거나 듣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저 시간만 허비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선택을 계속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외에도 사탄이 여러분을 죄로 이끌게 하며 그 속에 빠지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나면 여러분은 소비한 시간보다 훨씬 더 크게, 그 후의 여러분의 생활을 손상시키며, 매 순간 순간마다 부담을 주는 빚을 계속 쌓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짐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치료제를 찾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침대에 겪었던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어떤 곳으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당시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것으로 알았던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느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네 자신을 진실로 알게 되면, 너는 너의 시간을 좀더 잘 사용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당시의 그것은 나에게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 와서 나는 내가 누구이며, 여러분은 누구이고,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왜 후회하게 될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 혹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권고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평생이라는 시간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올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의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고자 소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유타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노변의 모임 말씀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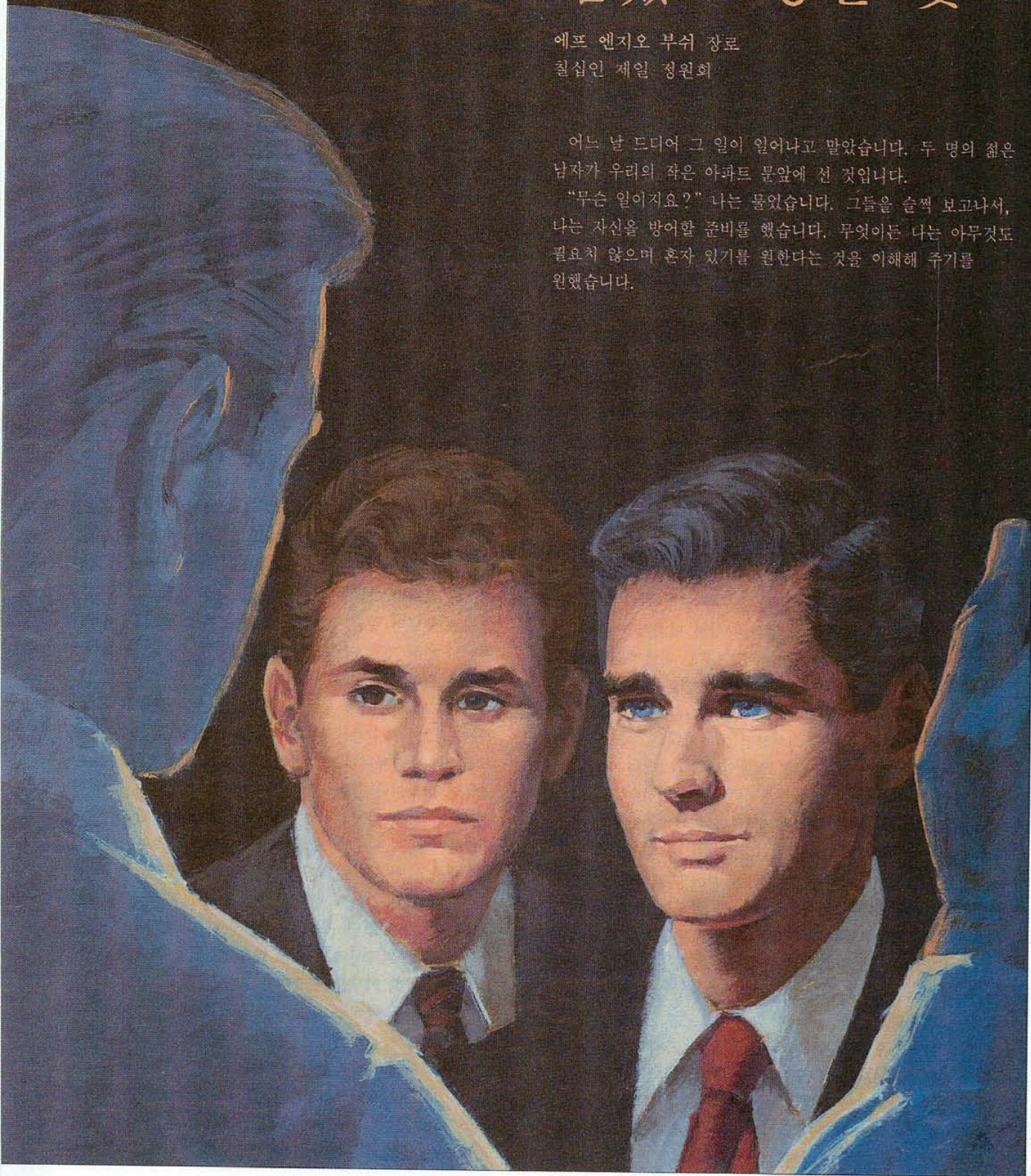


# 힘있고 강한 빛

에프 엔지오 부쉬 장르  
칠십인 제일 정원회

어느 날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우리의 작은 아파트 문앞에 선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들을 슬쩍 보고나서, 나는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이든 나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며 혼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앞에 서있는 두 젊은이들을 다시 한번 살펴 본 나는 첫번째 판단을 바꾸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했지만 화려하거나 부차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기쁨과 평온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의 품행은 겸손했지만 천박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걸 모습에는 공손함, 남의 의견에 경청함, 자존심, 그리고 내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 드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집 문앞에서 만났던 첫번째 선교사들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그들과 닮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외판원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다른 빛, 어떤 아주 힘있고 강한 빛을 발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이였습니다. 나로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의 나의 생활이 결코 전과 같아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점차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길로 인도될 좁은 길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개종시켜 그의 생의 진로를 바꾸어 그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곱서 1:7 참조) 오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접근 방법입니까? 옷차림 일까요? 잘 다듬은 머리입니까? 깨끗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개종은 강한 영의 영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간증은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많은 회원들, 특히 어린 회원들은 더욱 더 특별한 은사, 즉 우리가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귀중한 은사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맺은 성약의 일부로 우리는 성신의 은사, 신화의 일원이신 성신과 계속해서 동반할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회원은 규칙적으로 영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영을 온전히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원 각자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즐겁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은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은사를 제발시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말일성도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의의 원칙에 따라 생활할 때 어떤 상황하에서 영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경전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교성 84:46 참조) 여기에서 언급된 영은 “그리스도의 빛”(교성 88:7 참조)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돕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침례의 성약으로 인도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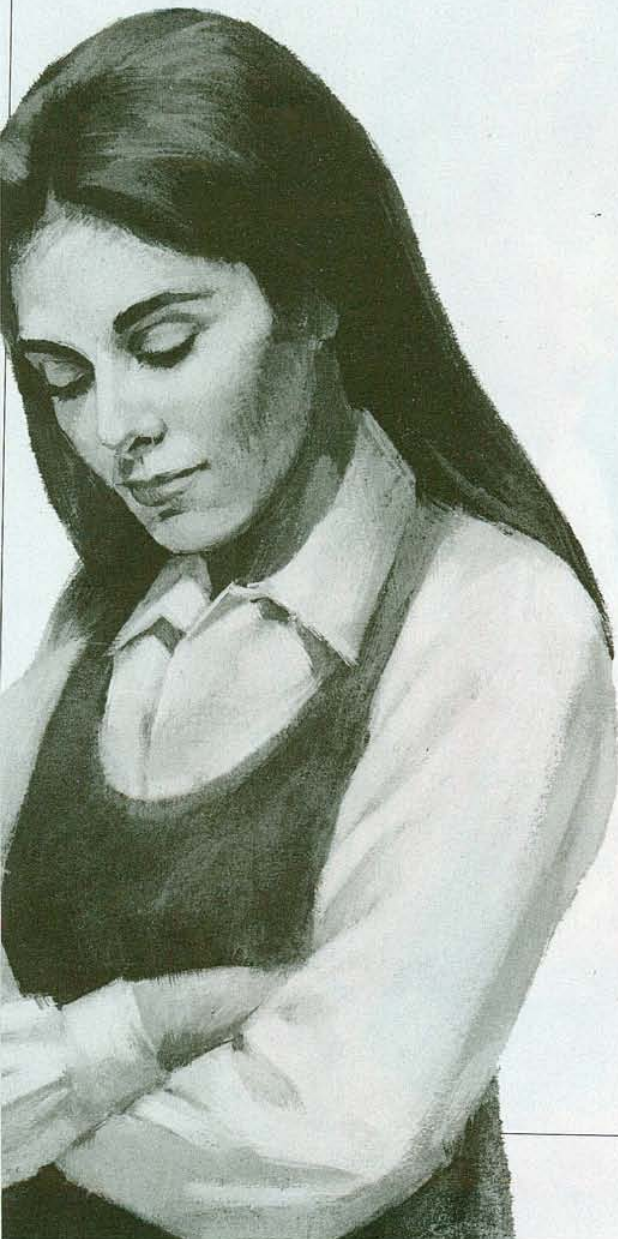
침례를 받는 즉시 성신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영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을 변창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끊임없이 연마하고 사용함으로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좌절과 퇴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간증을 잃게 되거나 참다운 기쁨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영의 영향력을 느꼈을 때를 기억하도록 노력하시기를 권유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가정 복음 교육 지명을 받았을 때입니까? 청소년 대회나 아니면 마지막 금식 간증 모임에서였습니까? 때때로 주님의 영을 경험하고 놀라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의 영향 아래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러할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영을 동반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의 예언자를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으로써 주어지나니”,(교성 42:14 참조) 신앙의 기도는 위급한 상황이나 갑작스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급한 때에만 진실한 신앙의 기도를 그분께 나아가 드린다면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아마도 어찌서 우리가 생활의 매 순간마다 영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왜 우리가 너무 늦어 버리거나 커다란 손실과 많은 고통을 받고서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에만 그분께 나아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여건이 좋을 때에는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해 나갈 수 있을 듯합니다. 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심리를 동행하여...”(니파이삼서 12:41 참조)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변성할 때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인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때** 때로 주님의 영을 경험하고 놀라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의 영향아래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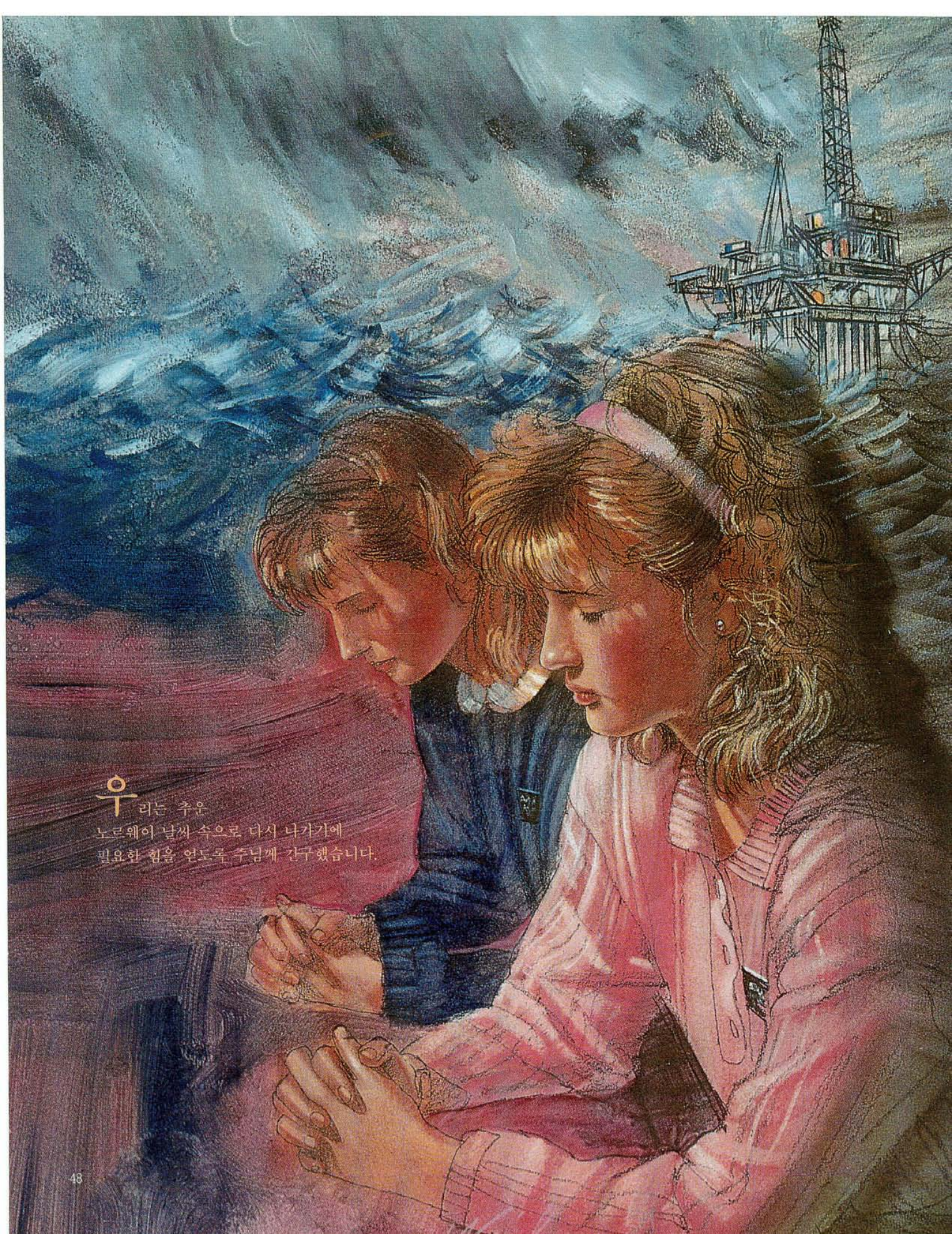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염려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변창하며 우리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을 통하여 우리가 가능한 가장 강력한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올바르게 평가하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일상의 일들을 어떻게 다루고, 우리의 선한 동기들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어떻게 두려움을 떨치고,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며,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은사의 도움으로 그것을 받는 회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힘을 모든 회원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능을 주었느니라.”(교성 45 : 8 참조)

우리가 영의 속삭임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한 짐으로부터 풀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빛과 확신과 기쁨이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작은 속삭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장애물을 개선하거나 제거하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달잡지 않은 속삭임 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할 때나, 가정 복음 교육 또는 방문 교육, 혹은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하는 다른 상황 등 단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 영적인 은사를 키워 나가는 듯이 보이는 것은 비극이며 커다란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약 30년 전에 우리 집을 방문한 그 선교사들로부터 발산되는 힘과 권능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젊은 회원들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은사를 받아들여 이 험난한 시대에 굳세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즐거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을 가까이 하며 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



우

리는 추운  
노르웨이 날씨 속으로 다시 나가기에  
필요한 힘을 얻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 위로 받을지어다

지나 파킨슨 베어드

내가 아사나 지역의 베르겐 노르웨이 구역에서 여덟 달째 선교사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때는 한 겨울이었다.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진도하고 다녔지만 토론을 거의 가르치지 못했다. 한사람이라도 침례준다는 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다.

베르겐은 노르웨이 서해안 위로 솟은 일곱개의 산 사이로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였다. 산에는 해안쪽으로 내려 불거나 해안에서 불어 올라오는 강풍이 서로 마주쳤다. 구름은 선교사나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나 가리지 않고 비를 퍼부어댔다. 바람은 비를 수평으로 날려서 우산을 마치 방패처럼 사용해야 했다. 우비와 장화가 밤새 말라서 다음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큰 행운이었다.

어느 특별한 날 비바람이 평소보다 더욱더 몰아쳤다. 동반자인 돌린스키 자매와 나는 험악한 날씨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했다. 만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 진도하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감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악천후로 인해 결국 우리는 집에 남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기록들을 살펴 보았다.

한 날이 지났으나 폭풍우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금새 다섯시 삼십분이 되었다. 저녁 진도를 나갈 시간이었다. 우리는 창문 밖으로 물살이 빠른 협강을 볼 수 있었다. 시커먼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다. 바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불어대고 비는 창문을 두드려댔다. 우리는 저녁 시간도 내내 집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밖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힘을 주시기를 간구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돌린스키 자매가 주님께서 엘마서 17장을 읽어보라고 하시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탁자에 앉아서 엘마와 모사이아의 네 아들에 관하여 읽기 시작했다. 5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다. “여행하는 동안에 저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 때로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로하여 심신의 고통이 컸으며, 영적으로도 많은 괴로움을 받았더라.”

폭풍우가 마치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으며, 이들 선교사들의

고통을 읽으면서 우리의 불편이 아주 작게 느껴졌다. 우리가 10~12절을 계속해서 읽어감에 따라 영이 우리의 작은 집에 채워졌다.

“주님께서 그의 영을 저들에게 보내어 이르시기를, 평강이 있을 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마음에 위로를 받더라.

“또한 주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인 레이맨인들[우리는 레이맨인들을 노르웨이인들로 바꿔서 읽었다.]에게로 가서 오래 참으며 고난을 견디며, 고통을 이기면서 내가 가르친 훌륭한 모범을 저들에게 보여 내 말을 이루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 손의 도구로 삼아 많은 영육을 구원하리라 하시니.

“[선교사들의] 가슴에 [노르웨이인]들에게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외칠 용기가 생겨났더라.”

이 구절들을 읽고난 우리는 우리가 이처럼 험상궂은 날씨 속에서 진도하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부름받은 지역의 백성들에게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도 역시 깨달았다. 우리의 고통은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었다.

우리는 코트를 입고 버스를 타고 우리의 진도 지역으로 갔다. 우리가 처음 문을 두드린 집의 사람은 복해 유전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자기는 좀처럼 집에 있지 않는데 폭풍우 때문에 바다로 일하러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물론경에 대해 그에게 가르쳤고, 그는 읽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물론경 한권을 그에게 주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 집을 나왔다.

주님께서 선교사로서의 나의 작은 고통을 아시고 그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동반자와 나에게 경전을 상고하도록 영감을 주시어 계속해서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은 선교 사업이 끝날 때까지 내게 머물러 있었고 내 생애를 통해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하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는 못하나, 나는 이 사실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가 놀라운 방법으로 몰몬경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진실로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맡겨 주신 이 큰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돕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